

진신사리 앞에 참배공간 無

익산사암련 등 익산 불교계 지도자 등 전시관 향의방문

6월 27일 봉행된 미륵사지전견법회 후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및 사리가 일반에 공개됐다. 이를 전견 또는 관람하려는 관람객이 하루 1만명이 넘게 미륵사지를 찾고 있는 가운데, 사리를 공개하고 있는 장소가 협소함은 물론 불자들이 참배할 공간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교계와 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측은 사리전견 법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람객들의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불자들의 참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물전시관 측은 당초 합의한 불자들의 관람에 대한 편의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불교계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협

소한 공간에 사리를 배치해 이 같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익산사암련연합회장 우성 스님과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박중근 익산불교신도회장 등 익산지역 불교계 지도자들은 6월 28일 익산 유물전시관을 향의 방문해 불자들이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진영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은 "상급기관의 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난색을 표했으나, 불교계인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사리를 중앙 메인홀에 다시 배치해 불자들이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은 "그 동안 사리를 전견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멀리서 방문한 불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며 "문화재청을 비롯한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의 불교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함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륵사지 현장에서 금산사, 익산 사암련연합회,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전북포교사단 소속 스님들과 불자들은 미륵사지를 찾는 불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리전견기간동안 커피, 녹차, 생수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선암사 사법사규 부활’ 등의결

총회 의장 호명·부의장 운범 스님 등 임명

순천 선암사에서 사중 현안을 두고 재적스님들 전체가 모여 의논하는 산중총회가 열렸다.



6월 17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재적승려 총회에는 92명의 재적스님들이 참석했다.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스님)에서는 6월 17일 적묵당에서 산중총회에 해당하는 재적승려 전산총회를 재적스님 92명이 모인 가운데 열었다.

선암사 소속으로 법랍 5년 이상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의장 법천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선암사 사법사규(寺法寺規)를 부활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도선암(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소재)을 선암사 말사로 환원시키고' '선암사와 조

계중간의 오랜 분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한 향후 선암사를 이끌어갈 종회의원과 종회소임자를 위촉했다. 종회의원에는 금봉·보안·성명·성관·성암·시각·운범·원문·월인·월호·정안·지상·혜신

·혜정·호명 스님이 위촉됐다.

총회소임에는 의장 호명 스님, 부의장 운범 스님, 총무 시각 스님, 서무 정안 스님이 각각 임명되었다.

총회에 앞서 경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한 지 1년 반 동안 많은 일을 진행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대중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며 "그동안 순천시청과의 관계개선과 노후된 전각을 보수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불교학교를 개설하고, 웹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등 포교에도 진력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유등에 희망과 소원 담아요”

광주 원각사, 유등 띄우기 행사 열어



7월 2일 광주전에서 열린 '유등 띄우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등에 소원을 적어 강에 띄우고 있다.

빛고을 광주도심을 흐르는 광주천에 소원을 담은 유등 띄우기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는 7월 2일 광주천에서 생전예수재 회향을 기념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저마다의 희망과 소원을 담은 유등 띄우기 행사를 봉행했다.

도제 스님을 비롯해 신도 2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법요식에 이어 원각사 합창단 공연, 살풀이, 통기타가수 공연 등 문화공연과 유등 띄우기 행사가 이어졌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생전

에 천도재를 지내는 의식인 생전에 수재 회향을 맞이해 광주시민의 편인한 휴식처인 광주천에 밝은 등을 띄우는 것은 자비와 광명을 세상에 비추는 것과 같다"며 "오늘 띄운 등불이 광주시민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돼 부처님의 법이 시민들의 가슴에 스며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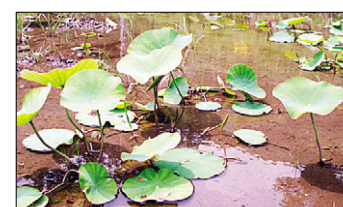
이날 참석자들은 저마다 컵등에 연잎을 붙이고 소원을 기록해 광주천에 등을 띄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꽃도 보고 명상수련도 하고

원주 옥련암 연꽃지와 차밭 조성

전북 원주군 옥련암(주지 일감)에 연꽃지와 차밭이 조성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주군 옥련암에 조성된 연꽃지.

일감 스님이 봉사자들과 함께 올 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연지는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를 담은 마음심(心)자 형태로 조성됐다.

홍련, 백련, 황련이 피어오르는 연지는 옥련암을 찾는 사람들이 연지를 보며 명상수련을 하고 최근 건립

한 등지선원에서 참선수련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감 스님은 "연꽃이 흙탕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고한 성품을 유지하고 부처님처럼 수행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마음심(心)자 형태로 조성했다"며 "누구나 참배하고 명상과 참선수련을 할 수 있는 열린 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흑산도 무심사지서 기와 등 유물 출토

선종 계통 사찰로 추정되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무심사에서 기와 조각 등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목포대박물관은 7월 3일, "6월부터 한달 여 동안 흑산도 무심사지 일대에서 시굴조사를 벌인 결과 사찰 건물터와 담 등 유구와 다량의 기와 조각, 막새류, 전돌, 자기류, 도기류 등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굴조사는 '흑산 무심사지 3층 석탑 및 석등(전남도 문화재 자료 제193호)' 유적을 중심으로 무심사지 가람 규모와 보존 범위를 파악해 무심사지 정비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편, 흑산도는 '반월성'이라 불리는 상라산성과 무심사지 3층 석탑 등 문화재가 곳곳에 분포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리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완과 잔을 세운 물을 버리거나 다완을 열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대 20,000원/중 10,000원/소 5,000원	 동근3꽃접시3중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원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담병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대 40,000원 / 소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대 60,000원 / 소 40,000원	 벗티화병 대 100,000원 / 소 80,000원	 보라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원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 @ 장러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협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오창록 사무국장

“바라밀 실천이 포교효과 높일 수 있어”



최근 익산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전견법회 행사장에서 사리전견을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봉사활동 중인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사무국장 오창록 이사(사진)를 만났다.

오 국장은 20여 년 전 큰스님들의 법문집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법업을 느끼던 중 불교를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자 이리불교대학에 입학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오창록 국장은 포교사고시까지 통과하면서 적극적인 불교활동을 펼쳐왔다.

오 국장은 익산의 마한거사립을 비롯한 신행단체와 익산불교신도연합회를 박중근 회장과 함께 4년 여를 이끌어 오며 엄청난 양적, 실적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결과에 오창록 국장의 보이지 않는 원력과 실천행이 숨어 있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 국장은 익산지역 불교계에 서 자신의 상(相)을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오창록 국장은 개신교와 원불교가 강세를 보이는 어려운 지역불교계 현실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꾸준히 신행활동과 봉사

계중간의 오랜 분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한 향후 선암사를 이끌어갈 종회의원과 종회소임자를 위촉했다. 종회의원에는 금봉·보안·성명·성관·성암·시각·운범·원문·월인·월호·정안·지상·혜신

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며 "그동안 순천시청과의 관계개선과 노후된 전각을 보수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불교학교를 개설하고, 웹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등 포교에도 진력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의 자비사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온 오창록 국장.

오즘 오 국장은 장의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부분이지만 올해 익산불교신도회 장의봉사팀장을 맡아 상을 당한 회원 가족이나 불자들을 위해 엄봉봉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창록 국장은 정기적으로 가까운 사찰을 찾아 108참회를 해왔다. 남원사에서 진행된 신묘장구대다라니 10만독 기도에도 동참해 매일 천수다라니를 100회씩 1000일간 독송하는 남다른 신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 국장은 "익산미륵사지 사리전견법회를 계기로 지역의 불교가 한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또 지역 불교계가 이를 계기로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 옛 백제불교의 영화를 재현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오창록 국장은 "익산지역 사찰들이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는 점을 들어 익산시내에 불교회관이 건립됐으면 한다"며 "자신은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종제 전북지사장